

“광주의 노래로 역사와 추억을 만나다”

전일생활문화센터 문화공간 각광
광주노래전시회·LP로 음악 감상
매주 두차례 ‘광주’ 주제 공개방송
오매광주·문화시민 소양 강좌 등

최근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전일빌딩 245 4층 전일생활문화센터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수많은 LP판들. 벽에 붙어 있는 수 십장의 LP들은 자세히 보니 모두 광주를 노래한 것들이었다. 잔잔히 흐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만난 LP와 오래된 통기타, 대학가요제 트로피, 턴테이블 등은 마치 70~8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을 준다.

전일생활문화센터가 광주를 노래한 우리 가요와 광주 출신 가수들의 노래, 그리고 광주에서 만들어진 노래 등을 시대별로 선보이는 전시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전일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는 광주시 동구 행복재단이 위탁 운영중인 공간이다. 예술공방, 동아리실, 소리작업실, 마주침 공간 등으로 구성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진행하기 힘들었던 ‘오매광주’, ‘광주시민 문화소양 교육’, DIY 키트를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비대면 집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예정이다.

그 중 하나인 ‘광주노래전시회’는 광주의 노래를 통해 광주가 갖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다. 주광 한국방송 DJ협회사가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광주 노래를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했다. 이곳에는 주 이사가 소장하고 있는 70여 점의 LP와 한국대중가요 연구소에서 빌려온 대학가요제 트로피 등이 전시돼 있다.

9일 오전 전시장에서 만난 주 이사는 “광주 시민이지만 광주에 대한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 노래의 역사와 함께 추억을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득수의 ‘무등산 아가씨’, 김연자의 ‘오! 광주여’ 등 60~70년대 옛 노래에 중점을 뒀어요. 그리고 ‘별밤’, ‘예림’, ‘꼬두메’ 등 통기타 동아리가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80년대 포크음악도 소개합니다.”

전시장 한 편에는 1970~1980년대 전일방송이 주최한 전일대학가요제를 조명한 기획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전일대학가요제는 ‘모모’의 김만준, ‘빙빙빙’ 하성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등 기라성 같은 가수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가수 등용문으로 각광을 받았다.

“1971년 개국한 전일방송은 이후 10여 년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1978년부터 3년 동안 지방에서 유일하게 대학가요제를 개최해 히트곡을 만들어 냈는데, 이때 전일방송은 지역의 방송국으로써 광주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시민에게 전달해 문화적인 창구 역할을 제대로 했죠. 전일방송이 있던 이곳에서 전시를 열게 돼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LP판 옆에는 노래를 바로 감상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그려져 있다. 또, 노래감상 시스템, 90년대 젊음의 공간이었던 ‘디스코 장’ 등 체험을 통해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광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오로지 광주쇼’도 진행됐다.

‘오로지 광주쇼’(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는 유튜브 채널 ‘245생활문화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매주 목요일 2시에는 ‘광주노래 이야기’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 광주 원예 소상공인 김영규씨가 게스트로 출연해 코로나 19로 인한 원예농가의 상황,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꼬끼리 풀 먹방, 눈 내리는 전당 등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도 송출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오매광주’(3~12월)는 ‘예·의·마·홍·정’을 주제로 광주의 다섯가지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문화시민 소양 강좌 시간에는 ‘광주 바로 알기’, ‘문화인의 귀 갖기’, ‘문화인의 눈 갖기’, ‘문화인의 입 갖기’ 등의 강연을 진행하며, 정인서 서구문화원장, 강영숙 남도음식연구가, 연극배우 노희설, 한국프로야구 중계방송 신조한 아나운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무료한 집콕 생활을 달래주는 ‘비대면 집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천연 염색 건강 마스크’, ‘비즈 꽃 반지 만들기’, ‘핑거니팅 목도리’, ‘미니 드림캐쳐’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문의 062-225-4245.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일빌딩245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오는 31일까지 ‘광주노래전시회’를 열어, ‘광주시민 문화소양 교육’, ‘비대면 집콕프로그램’ 등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광주노래전시회’ 모습.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2’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8일 ACC 극장1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한상일) 제 125회 정기연주회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2’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1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열린 한상일 지휘자의 취임연주회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의 두 번째 버전으로, 국악관현악과 다른 장르와 협연으로 국악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진행은 MBC가요열전 MC 박광선이 맡았

며 소리꾼 장사익,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통소 연주자 최민, 예술단 노름노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첫 무대는 2008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생중계돼 널리 알려진 ‘아리랑 환상곡’이다. 이어 풍어를 기원하는 소리이자 만민의 흥겨움을 노래하는 ‘배치기’, 영산강 하구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민요 ‘술비타령’을 선보인다.

통소협주곡 ‘풍전산곡’을 통해서도 시원한 소

리로 탈출(사자출)의 반주 등에 자주 쓰였던 통소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으며,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불리워지는 들노래(노동요) ‘용전들노래’는 국악관현악에 맞게 새롭게 작·편곡 돼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리꾼 장사익과 함께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 ‘역’, ‘절레절레’ 등을 선보이며, 끝으로 북소리 울림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북이라 동동’으로 마무리한다. 전석 1만 원. 062-415-5403.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신세계갤러리, 10일~4월13일



양지운 작 ‘나의 풀’

따뜻한 봄햇살에 몸과 마음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대지의 생명체도 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따뜻한 전시회가 열린다.

매년 봄의 활력을 담은 신춘기획전을 열어온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0일부터 오는 4월13일까지 ‘마음의 생태학’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인간의 마음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 사이 ‘관계’를 탐구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마음을 변화시킨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모사하는 대신,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자신만의 프리즘으로 반영해 구현한 작품들이다.

전시에는 자연의 생명력을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표현한 김민주·양지운·윤겸·윤혜린·이들님·이이정은·하지훈 등 7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전시작들은 작가와 자연이 나누는 대화의 기록이고, 관람객들은 이 기록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양지운·이들님 작가는 나뭇잎과 같은 자연물을 가져와 작업하고 윤혜린 작가는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강렬한 색채와 터치로 표현해냈다. 김민주 작가는 자연 속에서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구현하고, 윤겸·이이정은 작가는 자연의 에너지와 움직임을 포착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백화점 공간 전체로 전시공간을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의 전시가 열렸던 백화점 1층 갤러리와 함께 퍼스트라운지, 멤버스라운지, 컨시어지데스크에서도 전시를 선보인다. 백화점이 문화향유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작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민주 작 ‘사유의 숲’



장사익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지식상 소비자브랜드부문 [최연 연수]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한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